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연구

—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최수호^a · 이승현^b · 강은지^c · 김용근^{d*}

^a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b 서울시립대 대학원 조경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c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관광역가계획실 (서울시 동대문구)

^d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Awarenes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Role and Function in Urban and Rural Complex City

- Focusing on Comparison of Awareness between Agriculturalist and Nonagriculturalist -

Soo-Ho Choi · Seung-Hyun Lee · Eun-Jee Kang · Young-Geun Kim

Abstrac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s an education center to provide agriculturalists with information and technology related with agriculture.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is changing, functions and role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re evolving according to stream of times. In 1995, a new urban and rural complex city was created for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city and rural area, As a result, user group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expanded to nonagriculturalists. Though the change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s necessary to perform extended functions of rural area and to satisfy needs of new group of users, it is difficult to find enough studies on new functions and role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o manage the service chang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new functions and role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ccording to stream of times. This study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 targeting users of Namyangju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o compare user group awarenes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 urban and rural complex city.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while main purpose of agriculturalists' visiting a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was participating in education programs related with agriculture. In contrast, nonagriculturalists usually visited the center for agricultural understanding, leisure activities, and children education, participating in field work programs. From the survey result of required functions of the center, it was revealed that nonagriculturalists expected urban agriculture, research for living improvement in rural area, adjustment education for returning farmer, and function of farming promotion, comparing agriculturalists. It is verified that this difference of user group awareness reflects the necessity tha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should change services and accept increasing use of nonagriculturalists with new functions and roles.

Key words : Urban and Rural Complex City, func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griculturalist, nonagriculturalist, user awareness

주요어: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비농업인, 이용자 인식

* 교신저자(김용근) 전화: 02-6490-2842 e-mail: ygkim@uos.ac.kr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배봉관 6204호

1. 서론

산업화와 지식정보화시대를 거쳐 도시에 인구와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인구와 농업면적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농업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농업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속되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뿐만 아니라 농업개방화로 인한 농업의 생산여건이 악화되다보니, 농촌지역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그로인한 해결책으로 도농복합형 농촌개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송미령 외, 2002).

1980년대, 과거 도농분리 운영체제로 인한 도시지역 위주의 성장 문제 해결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농복합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정책상으로 도농복합이 시행되었다(김주숙 & 김은영, 2003; 오영석 & 이근수, 2006). 1995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하나의 시로 지정하여 새롭게 탄생한 도농복합시는 도농복합의 지역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기존에 기대했던 도농의 공존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농 간 이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임성일, 1994), 계속되는 도시지역의 인프라 집중 및 농촌지역 혐오시설 몰림 현상은 농촌지역주민의 소외와 같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김영 & 이강훈, 1997).

도농복합시의 출현으로 과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의견과 사회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농복합시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농촌의 생활 및 농업기술을 운영·관리하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농복합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이용 집단이 농촌주민에서 도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 과거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을 위한 농촌체험, 농촌테마공원 운영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미금시와 통합되기 이전 남양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단지 농업인을 위한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등의 기본 작물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이었다. 하지만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로 지정된 남양주시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농업인을 위한 한 단계 발전된 생활자원 및 식품가공 육성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유기농 텃밭 가꾸기, 그린학습원 및 시민 자연학습장을 통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추가되었다(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2010).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화 이후 급

격히 변화된 운영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센터의 내부적 문제점 및 농촌지도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김재호와 김성수(1995)는 시군농촌지도소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있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도시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농 상호적 기능 확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농촌지도 역할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비농업인을 시설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아닌 농업생산물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근우(2010)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과 조직의 문제점들을 밝혔으며, 이범승(2007)은 농촌지도기관의 거시적 평가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행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채의식(2012)은 지도직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유형과 조직역량을 조사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군 농촌지도체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농복합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함께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 기관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연구의 대상이 조직구성원과 농업인으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천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식 비교를 통하여 향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설정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사업과 연계된 도농복합시 여러 기관들의 역할 가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고찰

2.1. 도농복합시에 대한 이해

1960년대 이후 실시된 공업과 도시 중심의 개발에 따른 도농분리형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지역 인구과밀화 현상, 주택부족, 농촌지역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도농복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7). 그 후 도농복합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이었다. 이는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로 행정구역의 개편이 불투명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이규환, 1994).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도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1995년 1월 1일 32개의 도농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고, 2014년 7월 1일 도농복합시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현재 56개의 도농복합시가 운영되고 있다.

도농복합시 출범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에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침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설치되어있는 행정서비스를 감소시켜 비용절감의 효과와 공공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김선기, 1995). 또한 도시지역 주민에게 여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현대화 욕구 충족의 기회를 주어(장태욱, 1994)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를 우려해 빠르게 진행된 도농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이규환, 1994). 따라서 당시 연구 결과 도농복합시에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보다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었다. 심지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생을 위해 시행된 도농복합이 오히려 두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주숙 & 김은영, 2003).

더욱이 도농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을 시 전체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맡기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통합 이전 군 지역에 혐오시설이 몰리면서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이수만, 1995). 그와 반대로 도시지역은 계속해서 집중된 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도농복합시의 출범으로 인한 시와 군의 행정적 통합은 행정관리를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발전시켰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인식을 고려하지 못한 도농복합의 정책들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서로 다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요인들을 발생시키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였다(김주숙 & 김은영, 2003). 따라서 도농복합시 내에서 농업인과 비농업인 각각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도농복합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 추진 과제들을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농촌자매결연, 도시형농업 지원 등이 있다(아시아뉴스통신, 2014. 8. 19). 이 사업들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개인의 생활을 위한 간접적인 교류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직접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도시민과 농촌주민을 함께 한 곳에서 수용하는 농업기술

센터의 입지는 두 집단 간 직접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끌어내기 에 매우 적합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2.2.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변화

2.2.1.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농업기술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의 직속기관으로서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던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가 1998년 10월에 새롭게 개편된 기관이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촌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정보를 전달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이나 농촌생활 정보를 교육과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농촌진흥법 제2조). 앞에서 언급된 기술 및 정보 제공의 대상자는 농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시민, 소비자 등의 비농업인까지 포함된다.

농업기술센터의 유래를 살펴보면, 1962년 3월 21일 농촌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의 식량자급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식량보급의 문제가 큰 화두였기 때문에 통일벼의 개발 및 기술보급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1980년대, 국민의 식량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사계절 다양한 채소의 공급을 위해 비닐하우스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중앙정부조직의 축소 및 수입개방화로 인해 1998년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이라는 키워드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Van den Ban & Hawkins(1988)는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농촌기술보급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연구결과를 가공하여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기도 한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Eicher(2001)는 농촌지도사업을 기능과 목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한 체제 내에서 연속성을 가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도사업에 바탕이 되는 농촌진흥법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첫째로, 작물재배, 농가경영 및 농산물 유통, 도시농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Research)의 기능이다. 연구를 통한 농업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 식량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었고, 오늘날의 농업은 경영과 기술이 농가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연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이다(민철기, 2002; 김만수, 2011).

둘째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직접적으로 농촌을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Education)의 기능이다. 이근우(2010)는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의 보급 및 청소년 영농후계자 양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처럼 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 및 전문가 양성교육의 제공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한 취미농업, 귀농귀촌인을 위한 적응교육 또한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지도 및 지원(Extension)의 기능으로, 농촌 생활개선과 귀농귀촌,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과 농촌체험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통한 농촌의 올바른 방향설정의 기능이다. 농촌진흥법에 의하면, 농촌지도와 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기능에서 공통적으로 전제되어있는 정보 또는 기술의 전달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Promotion)의 기능이 있다. 이는 농업과 농촌마을에 대한 홍보, 농업기술 및 농정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말하며, 홍보를 통한 농업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민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농촌을 활성화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농업기술센터의 네 가지 기능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민의 농업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기능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되는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이 융합되어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용 집단을 고려한 기능 및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2.2.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변화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사회체계가 산업화 및 정보화시대를 거

쳐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기 까지 농업의 국제화와 개방화 등 많은 사회적 구조들이 변화하였다. 이촌향도의 사회적 흐름과 남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통적인 농촌지도 대상은 줄어들었지만, 도농복합시의 출범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화된 이용집단과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농촌지도사업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조영철 & 송용철, 2003).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수요가 농촌과 농업인에 제한되지 않고, 도시지역과 도시민, 소비자로서까지 확대됨에 따라, 과거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지도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도가 필요하다(김진화, 2007). 또한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을 폭넓게 설정하여, 21세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융합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농산업, 농업기술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패러다임을 도시민, 문화·복지, 쾌적한 삶의 생활공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확장하여야 하며(김진화, 2007),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화된 이용집단을 수용하지 못해 나타나는 집단 간의 차이는 참여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요구는 타 집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Shortall, 2004; 2008). 따라서 단순히 과거와 차별화 된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 농촌지도사업의 근본적인 이해를 통한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결합하여 이용 집단의 다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도시민의 농업기술 수요 증가와 주이용 층의 다양화를 수용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농복합시로 지정된 용인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농촌체험 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방공예, 웰빙떡 만들기와 같은 농촌체험, 작물기술교육, 농업인 리더교육, 신규농업인교육 등의 농업 기술 교육, 컴퓨터 강좌와 그린농업대학 등의 전문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테마공원은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하여 도농교류,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휴식 및 체험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와 군에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초기에 위에서 언급한 용인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이천시 등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귀농귀촌 준비반 운영 및 신규농업인 교육 등 현재

<표 1>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구분	내용
연구기능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생활환경 연구의 기능
교육기능	농촌을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능
지도 및 지원기능	지도 및 지원을 통한 농촌의 올바른 방향설정의 기능
홍보기능	정보 또는 기술의 전달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의 기능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도농복합시로서 타 군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도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비농업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군지역 특성상 군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직업 중 농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객이 대부분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의 조직구성을 보면 도농복합시 내 센터들은 '농촌관광과', '농촌테마과', '도시농업탐과' 같은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군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에 더욱 치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재배 기술지도 및 농업 전문 인력양성이라는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농업인과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6차 산업(농업+제조+서비스) 교육 등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1970~1990년대 식량자급, 경제작물 육성,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고유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시대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영철과 송용철(2003)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농촌지도사업 담당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 농촌지도사업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방 농촌지도공무원은 전체 529명 중 116명으로 21.9%를 차지하였고, 오히려 퇴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351명으로 전체조사 대상자의 66.4%를 차지하였다. 농촌지도사업이 퇴보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과 군수의 의지에 따라 지도사업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해 농촌지도사업이 다양해진 이용 집단과 변화된 사회구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역할 확대 및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화된 이용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은 시설의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중심에 있는 도농복합시 내의 농업기술센터가 이용 집단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의 연결점이 되어준다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두 집단의 조화로운 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농복합시의 출현으로 변화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지향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지 개요 및 현황

남양주시는 1995년 1월, 처음 출범된 32개 도농복합시 중 하나로, 전체인구가 2014년 9월 기준 63만 명으로 5읍(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건읍·오남읍), 4면(별내면·퇴계원면·수동면·조안면), 7동(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별내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458.06km²이다. 과거 미곡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형태의 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라고 볼 수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근교농업 시범 농업기술센터로 지정되어, 현 시대 농촌의 역할 변화에 따라 농업인과 일반시민 모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및 농촌자원 산업화로 차별화된 남양주농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린학습원, 유기농테마파크 등의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농촌 체험, 농업 기술교육, 전문인 교육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표 2>참조). 농촌체험은 채소재배 체험, 딸기 체험, 버섯 따기 체험 등 주로 농촌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활용한 어린이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전통요리 체험이나 압화만들기, 디쉬가든 체험과 같은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농업 기술교육은 전문적인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 리더

<표 2>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농촌 체험	유기농 텃밭 가꾸기 체험	농업 기술교육	농업인리더 교육	
	다도 체험		생활 교육	
	원에 체험		강소농 심화 교육	
	채소재배 체험		농업기계 전문 교육	
	디쉬가든 체험		EM(유용미생물) 교육	
	염색 체험		귀농귀촌 준비·심화반	
	베란다 텃밭 체험		과채류 교육	
	딸기 체험		아육재배 교육	
	버섯 따기 체험		전문인 교육	컴퓨터 강좌
	전통요리 체험			조경기능사 교육
압화만들기 체험	그린농업대학 교육			

교육, 과채류 교육, 아육재배 등 실제 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양을 기르는 교육들이 진행되어 농업인들이 주로 찾으며, 생활교육, 귀농준비반과 같은 농촌 적응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일반인도 많이 찾고 있다.

전문인 교육은 조정기능사 교육, 컴퓨터 강좌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그린농업대학이 이에 해당된다. 그린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농업 CEO 육성을 위해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채소과, 과수과,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 등 4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린농업대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농가 인증 및 유기농업기능사, 원예기능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3.2. 연구 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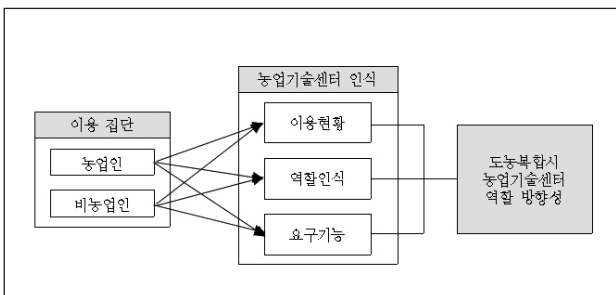
3.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기능과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용 집단 간 인식차이에 따른 향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실수요자이자 이용 집단인 농업인과 비농업인, 두 직업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용현황',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 인식',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용 집단의 다양화를 나타내며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도농복합시의 출범으로 확대된 이용 집단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농업기술센터 역할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2. 설문지의 변인 구성

본 연구의 설문항목의 구성은 다음 <표 3>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변수를 종합하여,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용현황,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만족도, 그리고 향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변수의 측정방법으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현황과 역할 인식은 명목척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만족도 및 요구기능은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였다.

<표 3> 설문항목의 구성

구분	설문항목의 구성 내용	신뢰도 (알파)
이용 현황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빈도, 방문 시기, 방문 목적	-
역할 인식	이용자가 생각하는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	-
연구 기능	농가경영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함 작물재배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함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함 지역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함	0.815
교육 기능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이 확대되길 원함 시민의 취미농업 교육이 확대되길 원함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이 확대되길 원함	0.724
요구 기능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적응교육이 확대되길 원함	
지도 및 지원 기능	농업인의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지원이 확대되길 원함 귀농귀촌에 대한 지도/지원이 확대되길 원함 농촌체험사업에 대한 지원/지도가 활발해지길 원함 농업인을 위한 농사 전문기술 지도/지원이 활성화되길 원함	0.812
정보 제공 및 홍보 기능	농업관련 전문 기술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길 원함 농정시책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길 원함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원함 지역 농촌마을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원함	0.842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

〈표 4〉 설문지의 개요

구분	세부내용
자료수집	1:1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이용자 설문조사
조사 대상지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조사 대상자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과 일반인
조사 시기	2013년 5월 13일 - 2013년 5월 22일
유효표본수	총 227부
표본추출방법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Method)

3.3.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남양주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1 면담을 통한 응답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하였으며,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총 24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유효표본수 총 227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표 4〉 참조).

최종유효 표본은 코딩(Coding)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으며,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각 변수들의 정확성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 현황 및 역할 인식의 직업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만족도 및 요구기능의 직업별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직업 중 '농업준비인'은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이용 집단인 '농업인'과 '비농업인' 양쪽 특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외의 분석 과정에서 해당 변수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표본은 총 227명으로 성

〈표 5〉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93	41.0	직업	농업인	87	38.3
	여자	134	59.0		농업준비인	29	12.8
연령	20대	4	1.8	거주민 유형	비농업인	111	48.9
	30대	22	9.7		지역 토박이	116	51.1
	40대	52	22.9		전입주민 (귀농귀촌인)	87	38.3
	50대	86	37.9		타 지역 거주민	24	10.6
	60대 이상	63	27.7		100만원 미만	17	7.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3	1.4	소득	100~200만원 미만	40	17.9
	중학교 졸업	22	9.8		200~300만원 미만	71	31.7
	고등학교 졸업	104	45.9		300~400만원 미만	55	24.6
	대학교 졸업	85	37.5		400~500만원 미만	25	11.2
	대학원 졸업	12	5.4		500만원 이상	16	7.1

별에서 남자가 41.0%(93명), 여자가 59.0%(134명)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7.9%(8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 27.8%(63명), 40대 22.9%(52명), 30대 9.7%(22명), 20대 1.8%(4명)로 조사되어 중장년층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9%(104명), 대학교 졸업이 37.5%(85명)으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으로는 비농업인이 48.9%(111명), 농업인이 38.3%(87명), 농업준비인이 12.8%(29명)로 조사되어, 과거 농업인 중심의 지도사업에 충실하던 농촌지도소가 시대 상황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터로 변화하면서 그 이용대상이 비농업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민의 유형으로는 전체 응답자 227명 중 절반 이상이 넘는 51.1%(116명)가 지역 토박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전입주민(귀농귀촌인) 38.3%(87명), 타 지역 거주민 10.6%(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이용대상의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1.7%(71명)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이 24.6%(55명), 100~200만원

〈표 6〉 직업별 거주민의 유형의 차이

구분	농업인	농업준비인	비농업인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지역 토박이	58(66.7)	13(44.8)	45(40.6)	116(51.1)
전입주민 (귀농귀촌인)	26(29.9)	14(48.3)	47(42.3)	87(38.3)
타 지역 거주민	3(3.4)	2(6.9)	19(17.1)	24(10.6)
TOTAL	87(100.0)	29(100.0)	111(100.0)	227(100.0)
카이제곱 검정	값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18.648		4	0.001**

* p<0.05, ** p<0.01

미만 17.9%(40명), 400~500만원 미만 11.2%(25명), 100만원 미만 7.5%(17명), 500만원 이상이 7.1%(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1.2. 직업별 거주민의 유형의 차이

설문응답자의 직업과 거주민의 유형을 교차분석하여 직업별 거주민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구체적으로 직업별 거주민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경우, 지역 토박이가 66.7%(58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비농업인의 경우, 지역 토박이와 전입주민(귀농귀촌인)이 각각 40.6%(45명), 42.3%(47명)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농업준비인의 경우도 지역 토박이와 전입주민(귀농귀촌인)의 비율이 각각 44.8%(13명), 48.3%(14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 농업인 이외의 집단에서 전체 거주민의 유형 중 전입주민(귀농귀촌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도시

〈표 7〉 직업별 농업기술센터 방문 빈도의 차이

구분	농업인	비농업인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처음	6(6.9)	32(28.9)	38(19.2)
1년에 2~3회	15(17.2)	31(27.9)	46(23.2)
한 달에 1~2회	23(26.4)	30(27.0)	53(26.8)
일주일 1~2회	41(47.2)	16(14.4)	57(28.8)
일주일 3~4회	2(2.3)	2(1.8)	4(2.0)
TOTAL	87(100.0)	111(100.0)	198(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32.817	4	0.000**

* p<0.05, ** p<0.01

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던 인원들이 최근 귀농귀촌을 위해 도농복합시로 상당수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직업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 현황 차이

4.2.1. 농업기술센터 방문 빈도

직업별 농업기술센터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빈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참조). 농업준비인을 제외한 응답자 농업인과 비농업인 전체 198명 중 일주일에 1~2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다는 응답이 28.8%(5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이외의 항목에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 농업기술센터의 이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47.2%(41명), 한 달에 1~2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26.4%(23명)로 잦은 이용 빈도를 보였다. 반면, 비농업인의 경우, 처음 방문한 응답자가 28.9%(32명), 1년에 2~3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27.9%(31명), 한 달에 1~2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27.0%(30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인이 비농업인보다 농업기술센터를 더욱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2.2. 농업기술센터 방문 요일

직업별 농업기술센터의 방문 요일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응답자 전체의 방문 요일을 살펴보면, 주중이 39.9%(79명), 요일 구분 없이 이용한다는 응답이 31.8%(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표 8〉 직업별 농업기술센터 방문 요일의 차이

구분	농업인	비농업인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주중	45(51.7)	34(30.6)	79(39.9)
주말 또는 공휴일	0(0.0)	39(35.2)	39(19.7)
요일 구분 없이 이용	36(41.4)	27(24.3)	63(31.8)
기타	6(6.9)	11(9.9)	17(8.6)
TOTAL	87(100.0)	111(100.0)	198(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40.981	3	0.000**

* p<0.05, ** p<0.01

〈표 9〉 직업별 방문 목적의 차이

구분	농업인	비농업인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농업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20(23.1)	8(7.2)	28(14.1)
농업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	53(60.9)	14(12.6)	67(33.9)
자녀교육을 위해서	1(1.1)	17(15.3)	18(9.1)
여가 및 산책을 즐기 위해서	0(0.0)	28(25.2)	28(14.1)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9(10.3)	35(31.6)	44(22.2)
기타	4(4.6)	9(8.1)	14(6.6)
TOTAL	87(100.0)	111(100.0)	198(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85.703	5	0.000**

* p<0.05, ** p<0.01

고, 농업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로 주중에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51.7%(45명), 요일 구분 없이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41.4%(36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농업인의 경우 주로 주말 또는 공휴일에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35.2%(39명), 주중에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30.6%(34명)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 주중 방문자와 필요시 요일과 관계없이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비농업인의 응답자는 주로 주중 또는 주말과 같은 휴일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농업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 또는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반면, 비농업인은 산책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다는 다음의 방문 목적 설문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3. 농업기술센터 방문 목적

직업별 방문 목적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참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3.9%(6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가 22.2%(44명)의 비율을 보였다. 농업인의 경우, 주로 농업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응답이 60.9%(53명), 농업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응답이 23.1%(20명)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비농업인의 경우,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방문한다는 응답이 31.6%(35명), 여가 및 산책을 즐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응답이 25.2%(28명)로 가장 많았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과 관련된 응답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농업인들의 응답을 보면, 자신의 직업인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농업관련 교육 및 정보를 얻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고, 비농업인의 경우,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방문 행태를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과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지도 중심의 농촌지도소 역할에서, 일반인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로까지 이미지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직업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자 인식차이

4.3.1.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인식

직업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참조). 전체 응답자의 39.4%(78명)가 농업인을 위한 전문 기술지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28.8%(57명),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14.6%(29명), 농업인 양성 교육 11.1%(22명), 지역농업의 홍보 6.1%(1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 인식을 살펴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농업인을 위한 전문 기술지도가 각각 48.3%(42

〈표 10〉 직업별 농업기술센터 역할 인식의 차이

구분	농업인	비농업인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지역농업의 홍보	3(3.4)	9(8.1)	12(6.1)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23(26.5)	34(30.6)	57(28.8)
농업인을 위한 전문 기술지도	42(48.3)	36(32.5)	78(39.4)
농업인 양성 교육	13(14.9)	9(8.1)	22(11.1)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6(6.9)	23(20.7)	29(14.6)
TOTAL	87(100.0)	111(100.0)	198(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13.567	4	0.009**

* p<0.05, ** p<0.01

명), 32.5%(36명)로 가장 높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가 농업인 26.5%(23명), 비농업인 30.6%(34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농업인의 경우 특별히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11.6%(23명)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이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 지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농업인이 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인 농업의 홍보와 농촌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실천하여야 한다.

4.3.2.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요구기능

앞으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응답자의 직업, 농업인과 비농업인 집단 간 평균차이를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교육, 지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네 가지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능별 요구도의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연구기능 4.20, 교육기능 4.13, 지도 및 지원기능 4.21,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 4.20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요구기능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별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되는 연구기능의 평균차이를

<표 11> 직업별 농업기술센터 요구기능 평균차이

구분	평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전체	농업인	비농업인	t	유의확률
연구 기능	농가경영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22	4.24	4.20	0.337	0.736
	작물재배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31	4.31	4.31	-0.047	0.963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06	3.72	4.32	-5.409	0.000**
	지역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23	4.08	4.36	-2.609	0.010**
교육 기능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	4.29	4.31	4.27	0.299	0.765
	시민의 취미농업 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	3.82	3.48	4.09	-4.901	0.000**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	4.28	4.27	4.29	-0.216	0.830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적응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	4.16	4.00	4.29	-2.598	0.010**
지도 및 지원 기능	농업인의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지원이 확대되길 원한다.	4.23	4.28	4.19	0.849	0.397
	귀농귀촌에 대한 지도·지원이 확대되길 원한다.	4.07	3.89	4.20	-2.866	0.005**
	농촌체험사업에 대한 지도·지원이 활발해지길 원한다.	4.21	4.16	4.25	-0.948	0.344
	농업인을 위한 농사 전문기술 지도·지원이 활성화되길 원한다.	4.36	4.41	4.32	0.946	0.345
정보제공 및 홍보 기능	농업관련 전문 기술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길 원한다.	4.33	4.39	4.28	1.124	0.262
	농정시책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길 원한다.	4.18	4.27	4.11	1.577	0.116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07	3.90	4.20	-2.795	0.006**
	지역 농촌마을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원한다.	4.22	4.13	4.29	-1.594	0.113

* p<0.05, ** p<0.01

분석한 결과,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4.06에서 농업인이 평균 3.72, 비농업인이 평균 4.32, 지역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4.23에서 농업인이 4.08, 비농업인이 4.36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물재배, 농가 경영 및 농산물 유통과 같은 항목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연구기능 요구도가 전체평균 4.20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농업인은 도시농업 및 지역농촌 생활개선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일차적인 농업지도와 농작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있지만, 도시농업 및 생활개선과 같은 경우, 농업인이 이미 타 기관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시텃밭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직업별 요구되는 교육기능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취미농업 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3.82에서 농업인이 평균 3.48, 비농업인이 평균 4.09,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적응교육이 확대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4.16에서 농업인이 평균 4.00, 비농업인이 평균 4.29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취미농업 교육확대와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적응교육의 확대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비교했을 때는 농업인이 비농업인보다는 두 항목에 대해 다소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교육기능 요구도가 전체평균 4.13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농업인은 취미농업 교육 확대에 대해 요구기능의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비농업인과는 달리 농업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인 농업이 도시민들의 취미생활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기능에서 도시농업 관련 항목이 그러하듯이, 농업인은 비농업인에게 농업을 알리는 것이 농업을 더욱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지도 및 지원기능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도·지원이 확대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4.07에서 농업인이 평균 3.89, 비농업인이 평균 4.20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기능의 요구도가 전체평균 4.21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농업인은 귀농귀촌에 대한 지도·지원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아직까지 모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현재 귀농귀촌인과 농촌주민의 관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를 통해 농업인들이 귀농귀촌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에서는, 4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는 항목 전체평균 4.07에서 농업인이 평균 3.90, 비농업인이 평균 4.20으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나,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 요구도가 전체평균 4.20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농업인은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설문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 농업인은 무의식적으로 도시민과 농업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 네 가지 기능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비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기능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하지만 농업인은 도시민 또는 비농업인이 농업을 접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농촌은 지속적인 귀농귀촌과 이주 등으로 다양한 집단이 유입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을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 집단 간 인식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농업인과 비농업인 사이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식이 유효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된 도농복합시는 시행초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지역 집중 개발과 농촌지역 혐오시설 밀집 등의 지역불균형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도

농복합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농촌체험관광과 같은 도농교류프로그램 및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서로 다른 인식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도농복합과 동시에 도시민의 농업 및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호기심 해소의 장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담당하던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이용 집단이 농업인에서 비농업인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기능의 확대와 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농복합시 내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는 도농복합시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올바른 시설 활용을 위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집단 간 인식차이를 반영한 기능과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농복합시의 출범으로 인하여 다양해진 농업기술센터의 이용 집단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농복합시의 특징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및 역할 변화에 관한 고찰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이용 집단의 특성에 따른 요구기능 및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식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별 농업기술센터 이용 빈도, 방문 목적, 참여 프로그램 종류 등의 이용 현황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냈다.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요일 구분 없이 주기적으로 주 1~2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반면, 비농업인은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주말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직업별 이용 현황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정과 폭넓은 이용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 비농업인의 방문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업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인식과 요구기능을 조사한 결과,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사이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농업인과 비농업인 두 이용 집단 모두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이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 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 지도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되는 기능에 있어서는 농업인의 경우, 작물재배 및 농업 전문기술과 관련된 연구, 교육, 지도 등 생

활에 필요한 기술습득에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도시농업과 취미농업, 귀농귀촌에 대한 문항에서는 비농업인에 비해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비농업인은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에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비농업인을 위한 기능 외에도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연구 및 전문 기술교육의 기능에 농업인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항목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농업인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농업기술센터가 과거부터 농업의 전반적인 교육과 개발을 담당하던 기관이라는 것과 그 기능의 중요성을 농업인과 함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도농복합시라는 넓고 다양해진 사회구성원 속에서 비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만큼 농업인 또한 비농업인을 농업·농촌과 따로 구분 짓지 않고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집단이 서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만의 소유가 아닌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장소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 이용 집단 확대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정확한 이용 집단의 이용 현황 파악과 이용 집단 간 인식 차이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기술지도 및 교육,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복합시라는 지역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를 배려한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도와 여가기능으로서의 새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 도입 및 귀농귀촌인의 농촌적응 교육 등의 기능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즐기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을 통해 두 집단의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농복합시의 출현으로 변화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다양해진 이용 집단의 수요 차이를 비교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도농복합시의 기관으로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토대로 도농복합시 농업기술센터의 적절한 역할모형을 설정한다면, 향후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그린학습원이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유형의 농업기술센터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 (1997).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행정수요 분석과 기능 재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2. 김만수. (2011). 경기도 농촌지도사업의 통합과 과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선기. (1995).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 *도시문제*, 30(316), 9-18.
4. 김영, & 이강훈. (1997). 통합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공간과 사회*, 8, 58-79.
5. 김재호, & 김성수. (1995). 지방화시대 시군농촌지도소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2), 109-116.
6. 김주숙, & 김은영. (2003).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3(1), 85-114.
7. 김진화. (2007). 농촌지도사업 명칭의 이미지 및 적합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137-165.
8.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2010). 남양주농업 명품화 전략.
9. 민철기. (2002). 농촌사회 변동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송미령, 박시현, 이규천, & 성주인. (2002). 도·농 통합형 농촌정주 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아시아뉴스통신. (2014. 8. 19). 이인영. 청주시, 코컬푸드 직거래장터 등 도농교류 활성화 중점추진.
12. 오영석, & 이근수. (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59-180.
13. 이규환. (1994). 도·농통합의 도시정책. *도시문제*, 29(313), 24-38.
14. 이근우. (2010). 지역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범승. (2007).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임성일. (1994). 도·농통합형 도시행·재정의 과제. *도시문제*, 29(307), 44-59.
17. 장태욱. (1994). 도·농통합의 의의와 방향. *도시문제*, 29(307), 9-20.
18. 조영철, & 송용섭. (2003). 농촌지도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지방 농촌지도공무원의 인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87-97.
19. 채의석. (2012). 농업기술센터 조직유형과 조직역량에 대한 연구: 행정통합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Eicher, C. K. (2001). Africa's unfinished business: Building sustainable Agricultural research systems. staff paper no. 20001-

10. East Lansing, Michigan, USA,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Michigan State University.
21. Van Den Ban, A. W. & Hawkins, H. S. (1988). *Agricultural Extension*. scientific & Technical. London: Longman.
22. Shortall, S. (2004). Social or economic goals, civic inclusion or exclusion? An analysis of rural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Sociologia Ruralis*, 44(1), 110-124.
23. Shortall, S. (2008). Ar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socially inclusive? Social inclusion, civic engagement,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differences. *Journal of Rural Studies*, 24, 450-457.

Received 12 February 2015; Revised 02 March 2015; Accepted 10 March 2015



Soo-Ho Choi is a director of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in Namyangju-si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on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agriculturalist research.
Address : Namyangju-si A.T.C 234-46 Sareung-ro, Jingeon-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e-mail) csh386@hanmail.net, phone) 82-31-590-4568



Seung-Hyun Lee is a researcher of Tour & Leisure Plan in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on rural tourism, rural resources, and economic value.
Address : 6411, Baebong Hall,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130-743 KOREA e-mail) ted4190@naver.com, phone) 82-2-6490-5520



Dr. Eun-Jee Kang is a researcher of Tour & Leisure Plan in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on urban park management, user manage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Address : 6411, Baebong Hall,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130-743 KOREA e-mail) riverg80@uos.ac.kr, phone) 82-2-6490-5520



Dr. Young-Geun Kim is a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on leisure,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Address : 6204, Baebong Hall,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130-743 KOREA e-mail) ygkim@uos.ac.kr, phone) 82-2-6490-2842